

國際熱帶木材機構(ITTO)와 韓國의 國際林業對應方案

俞 炳 一 / 林業研究院

本人은 지난 11月15日부터 11月24日까지 日本 요코하마에서 開催된 國際熱帶木材機構(ITTO) 9次 이사회에 政府代表의 一員으로 山林廳 輸出課 愼宗武 事務官과 함께 駐日本國韓國大使館의 李俊栽 一等書記官을 首席代表로 하여 參與하였는바 會議參席後 느낀 內容을 간단히 整理하여 韓國의 山林所有者에게 海外林業動向에 대한 情報을 提供하고 關聯機關이 今後 韓國의 林業發展과 海外林業對應戰略을 樹立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國際熱帶木材機構(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는 1983年에 國際熱帶木材協定(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이 國際聯合機構(UN)에서 締結되고 이것이 1985年 4月 1日부터 발효함에 따라 1986年 7月 29日자로 國際熱帶木材委員會(ITTC,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Council)의 事務局本部가 日本 요코하마에 設置되어 一年에 봄, 가을로 두차례씩 國際熱帶林業에 關聯한 會議을 開催하고 있다.

國際熱帶木材委員會의 目的은 熱帶 林産物을 持續的으로 利用할 計劃下에 熱帶木材 生産國과 消費國間의 상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며, 또한나의 目的은

熱帶林과 遺傳資源의 保存을 위하고, 熱帶林地域의 生態的 均衡을 維持하는 것이다.

國際熱帶木材機構가 設立된 背景은 熱帶雨林이 世界의 가장 豐富한 생물계의 寶庫로서 지금까지 人類에게 알려진 野生鳥獸, 植物, 昆蟲의 절반이 이 熱帶雨林에서 捷息하고 있는 것으로 調查되었는데, 이 地域의 植物에서 現代 醫藥品의 약 40%가 由來(연간 100억불의 시장, 우리나라 화폐로 약 70조원상당) 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資源市場으로서의 經濟的 價値가 점차 增大하고 있다. 예로서 熱帶地方의 一部樹種은 現代의 不治病이라는 AIDS治療可能性을 提示해 주고 있으나 마구 破壞되어 滅種水準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또한 熱帶林은 잠재적인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社會的 發展과 經濟的 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資源이며 未來를 위한 유전자 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에 全世界적으로 이러한 山林의 약 40%程度가 이미 消滅되었으며, 現在 山林面積의 50%以上이 開發途上國(熱帶林所有國은 약 70여개國家이나 山林面積의 50% 以上이 3개국에 置重되어 있다. 브라질 33%, 자이레 10%, 인도네시아 10%)에 位置하고 있어 開發途上國의 境遇 自國의 經濟發展을 위하여는 熱帶林의

과별과 남벌을 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예를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연간 약1억 5천만 m³을 伐採하여 2천만 m³을 輸出하고 약 3억불(2천억원)의 外貨를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같이 熱帶地域에서는 每年 750만 ha의 橋林과 380만 ha의 疎林이 伐採되어 開發途上國家 人口의 大部分인 약 30억의 人口가 연료재, 산업용재로 利用하고 있으며, 熱帶林의 破壞는 適切한 對策이 없는한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國際機構가 國際熱帶木材協定을 制定하고 生産國과 消費國이 共同으로 問題 解決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表 ITTO의 會員國

地域	生産國	消費國
아프리카 지역	카메룬, 코트디보와트, 콩고, 가나, 토고, 라이베리아, 자이레, 가봉	이집트
아태지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아, 인도, 필리핀, 태국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네팔
미주지역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혼두라스, 파나마, 트리니다드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소련
계	22個國	26個國

國際熱帶木材機構는 이번 이사회에서 2개국(네팔, 자이레)의 新規加入을 追加로 認定하여 모두 48個國家가 會員國家로 加入이 되어 있는데, 이중 22國家는 熱帶木材 生産者이며, 이들 國家가 전체 지구상의 열대림의 80%程度를 차지하고 있으며, 熱帶木材生産量의 90%를 生産하여 世界各國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熱帶木材 主要消費國의 하나로 현재 26개 消費會員國家中 日本, 美國 다음으로 輸入物量이 많아 輸入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世界 林産物 輸出入 物動量의 相當量을 日本이 輸入하고 있기때문에 日本의 國際林業에 대한 影響力은 점차 강해지고 있는 實情이며, 韓國도 21世紀 中반까지도 國內 木材所要量의 50%以上을 海外에 依存해야만 할 形便이므로 海外林業의 東向, 특히 日本의 海外林業政策을 예의 注視할 必要가 있다.

國際熱帶木材機構(ITTO) 9次總會에서는 例年과 마찬가지로 3個常設委員會(經濟 및 市場情報委員會, 造林 및 經營委員會, 林産工業委員會)가 함께 開催되었는데, 各 常設委員會別로 ITTO를 통해 이미 進行되고 있는 事業과 進行豫備事業의 進度報告, 豫備事業의 審査, 今回에 提出된 事業의 審査 및 其他事業들을 討議하고 最終理事會에서 決定을 하는데 今年度 主要決定事項으로는 91年度에 韓國이 同機構에 12萬9千弗의 行政豫算(全體 308萬1千弗, 約 4.1%)을 負擔하게되었고, 同機構의 職員이 現在의 22名에서 4名이 增員되어 26名이 되었다. 또한 事業進行 또는 新規事業審査結果 新規題目 29題目中 23個事業이 採擇되고 이중 14個 題目만이 이번회기에 日本, 스위스, 덴마크등의 國家로 부터

資金支援을 받게 되었으며, 이의 豫備事業 7個題目, 既存事業의 期間延長事業 2件, 기선정되었으나 資金支援을 못받고있던 3題目등 總26個 事業이 生産國과 消費國의 合意에 따라 熱帶林保續生産에 관한 研究 및 事業資金을 支援받게 되었다. 이와함께 '91년과 '92년에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各 各 開催豫定인 10次世界山林大會와 유엔環境開發會議에 대한 對策도 檢討되었는데 兩大會는 國際林業의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다.

現在 主要한 國際林業모임으로는 1977년 나이로비에서 開催된 유엔沙漠化 防止會議을 비롯하여 1984년부터 시작된 國際熱帶木材機構모임, 1992년 브라질에서 開催豫定인 유엔環境開發委(UNCED)會議을 위한 準備모임이 활발히 進行中인데 이들會議의 主要議題는 大部分 지구상의 山林破壞防止와 山林保全 및 環境保護에 焦點이 맞추어져 있으며, 結果적으로 山林伐採減少에 따른 木材生産量의 減少가 豫想되는데 今年 會議에서도 一部國家에서는 木材生産의 過伐禁止를 提議하였으며, 具體的인 실례로 現在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에서 生産되는 약 1,800만³m의 木材生産量을 절반정도로 줄일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경우 현재 日本이 同地域에서 약 900만³m程度를 輸入해가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50%정도를 生産減縮할 경우 사라와크 生産量 全體를 이미 ITTO 등을 통하여 生産國에게 상당한 자금지원을 하여온 日本이 獨點하게되는 結果가 招來되고 韓國을 비롯한 其他 國家의 경우 必要한 木材輸入이 전혀 不可能하게된다는 假定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各國의 資源保護와 木

材資源 先占競爭이 熾烈한 國際舞臺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對應方案으로는

첫째, 世界的 環境保護認識이 擴大됨에 따라 海外山林(특히 熱帶林)의 破壞防止에 대한 國際的 關心이 增大되고 있음을 勘案하여 韓國도 國際林業에 대한 關心과 理解를 政府와 民間企業 그리고 一般山主 모두가 增進시킬 必要가 있으며,

둘째, 韓國의 境遇 熱帶材를 다량 輸入('89년 780만³m, 남양재 350만³m(전체 수입량의 45%), 大部分 國內消費)하고 있으므로 今後 安定的인 熱帶南洋材 輸入을 위하여는 木材輸入適正價格이외의 木材生産國에 대한 山林保護 保全次元의 國家支援이 ITTO와 같은 國際機構를 통하여 公式的인 海外林業協力形態로 이루어질 必要性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境遇 '90년 一年동안 약 3,000만불(약 210억원)을 ITTO를 통하여 熱帶山林保有國에 支援하였으며, 熱帶山林保有國에 대한 산림공무원의 파견근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日本이 강력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海外山林資源에 대한 一種의 입도 선매성격의 資金支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이와같은 國際林業環境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는 海外林業動向의 精確한 把握, 國際協力の 能動的 對處가 要求되는데 이를 위하여는 國際林業擔當全擔組織과 全擔人力을 山林行政機關에 設置하고, 國際會議에 아국의 立場을 精確히 反映시킬 수 있고 海外林業動向을 신속히 파악하여 國內林業政策樹立에 反映시킬 수 있는 海外感覺을 가진 專門人力이 持續적으로 參與하여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國際會議에 非專門家가 一回性으로 一部 參席

함에 따라 會議討議와 結果內容의 持續的인 連結이 困難하였다는 점을 勘案하면 21世紀 韓國林業發展을 위하여는 시급히 改善되어야만 할 것이다.

넷째, 또한 外國 主要 山林保有國에 派遣되어 있는 林務官을 增員시킬 必要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1인이 파견되어 인도네시아에 進出하여 있는 韓國山林開發業體를 支援해주고 있는 실정이나 韓國의 海外木材依存도가 높고 導入外材가 海外導入品目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外材의 경우 海外導入品目別 輸入額中 7~8位), 특히 木材輸入이 熱帶闊葉樹材 中心에서 針葉樹材로 變換되고 있다는 사실을 勘案 하면 主要木材市場인 日本과 美國에도 林務官을 派遣配置하는 것이 世界林業動向 및 木材市場情報獲得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日本 駐在 林務官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소련,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양지대의 주요 木材 生産 消費國의 動向을 美國駐在 林務官의 경우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소련 등의 北南美地域의 林業動向과 木材流通狀況에 대한 精確한 情報를 쉽게 收集할 수 있으며, 韓國 木材關聯企業이 美國 와싱턴주 시애틀주변에 20여 개 이상 이미 進出해 있는 狀況을 勘案할 경우 韓國林務官增派의 必要性은 時急하다

고 할 수 있다.

다섯째, 海外林業動向은 로마에 本部를 두고 있는 FAO와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하고 있는 國際熱帶木材機構(ITTO)를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으므로 韓國林業人의 兩機關으로의 進出 역시 時急하다고 할 수 있다. 現在 兩機構 林業關聯部署에 韓國인이 전혀 進出을 못하고 있다는 事實은 國際時代를 사는 韓國林業의 限界를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마지막으로 國內 山林所有者들도 海外山林資源枯竭에 對備하여 現在의 어려운 山林經營環境을 克服하고 健全한 國內山林資源造成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며, 山林資源은 必要한 時機에 短期間內에 造成될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認識하여 後代에 물려줄 수 있는 貴重한 山林資源造成에 남다른 證지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情報化·國際化 時代를 맞이하여 國民과 林業關聯企業을 代表하여 山林行政機關이 以上の 對應方案을 勘案하여 보다 效果的인 海外林業政策을 主導的으로 樹立 推進해나갈수 있도록 勞力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林業·林産業 關聯機關 및 團體는 물론 凡政府的 次元에서 함께 勞力해야만 소기의 成果를 早速히 期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새해의 국고보조 산림사업 희망산주는
해당군과 협의하세요